

어린이 비만의 종말



연 운 열 익
치유보감

어린이 비만이 우려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학생건강조사에 따르면, 2021년 서울 초등학생 비만율이 약 20%에 도달하였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어린이 비만은 표준 체중보다 20% 이상 많거나, 같은 연령대에서 체질량지수(BMI)가 상위 5% 일 때를 말한다. 비만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열량이 소비되는 열량보다 많으면 체내 지방세포가 성장하게 된다.

즉 비만의 주 원인은 과도한 음식 섭취에 기인한다. 과도한 영양 섭취로 발생한 유해한 활성산소로 말미암아 세포 내부의 미토콘드리아와 DNA가 자극을 받아 생명유지 활동에 사용되는 ATP 생성이 감소하고, 결국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여 세포노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지방세포 숫자가 늘어나는 비만을 지방세포 증식형이라고 하고, 지방세포 크기가 커지는 비만을 지방세포 비대형이라고 한

다. 그런데 어린이 비만은 대부분 지방세포 증식형이다. 비만세포의 크기는 작아질 수 있지만 비만세포의 숫자가 일단 증가하면 체중을 줄여도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어렸을 때 비만이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으로 이어져 지방세포 수와 크기가 모두 늘어나는 지방세포 증식 및 지방세포 비대 복합형 비만이 되기 쉽다. 어린이 비만이 되면 고혈압·당뇨병·이상 지질혈증 등 대사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린이 비만은 가족 식습관과 생활 습관의 영향을 받아 부모 중 한 명이 비만이면 자녀가 비만이 될 가능성이 50% 정도나 되고 부모가 모두 비만이면 80%까지 증가 한다. 따라서 아이 부모의 식습관이 패스트푸드와 과다한 육식 등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을 즐긴다면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채소, 과일, 곡류, 견과류 등 균형 있는 식단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길들여야 할 것이다.

비만관련 설문조사에서 한국인 중 60%는 자신이 과체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다이어트 중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55%나 되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소비 칼로리보다

섭취 칼로리의 양을 줄여야 한다.

효과적인 다이어트 기능성식품이라면 인슐린 분비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함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하여 혈당을 낮추어 준다.

세포와 결합한 당 성분은 근육조직에서 글리코겐으로 바뀌고,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신호가 오면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축적된 지방을 다량 함유한 지방세포는 아디포네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지방세포에서 염증성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유리지방산이 증가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반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은 식욕을 억제하고 체내 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체중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다. 렙틴이 부족하면 식욕을 부추겨 비만을 초래하게 된다. 즉, 렙틴은 음식 섭취를 줄이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식욕조절 호르몬으로 작용한다. 권장할 만한 다이어트 방법으로는 하루에 필요한 열량보다 500kcal를 적게 섭취하는 방법이다.

섭취량을 줄였을 경우 1주일에 약 0.5~1.0kg의 체중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기자 수첩
허 정 윤
(산업부)

삼성에게 '엑시노스'는?

비스), 발열, AP 문제 등을 개선한 것에 큰 호감을 드러냈다. 특히, AP는 스마트폰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스마트폰의 '두뇌'로, 삼성전자는 갤럭시 S23 전 기종에 퀄컴의 AP를 전량 채용하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다시금 얻어냈다.

S23 덕분에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입지도 단단해졌다. 대표적으로 프리미엄 판매 비중이 높은 유럽에서는 전작인 갤럭시 S22 대비 1.5배의 판매를 올리고, 인도·중동·중남미 할 것 없이 점유율 높이기에 성공한 모습이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AP를 퀄컴에 의존 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퀄컴의 AP가 언제나 갤럭시 시리즈에 걸맞은 성능을 보여줄지도 확실하지 않고, 삼성전자의 자체 AP가 없으면 결국 퀄컴과의 가격협상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AP 구매비용은 9조313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조원이나 증가했다. AP 가격이 폭등하면 원가 절감도 어려워지게 된다. '비싼 폰'이라는 인식이 있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라 할지라도 가격 경쟁력이 가지는 우위는 무시할 수 없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글로벌 제조사라해도 부품 가격이 상승했는데 언제까지고 이번처럼 '출고가 동결'을 고수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엑시노스는 삼성이 포기할 수 없는 존재다. 업계에서는 내년에 엑시노스의 프리미엄 라인업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빠르면 갤럭시 S24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줄어든 가운데에서도 R&D 투자는 6조58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선제적이고 꾸준한 투자가 엑시노스에서 발현되기를 바란다. /zeltkova@metroseoul.co.kr

글로벌 경기침체가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파고를 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1~3월) 반도체 부문 4조5800억원 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스마트폰과 가전 부문에서 수익성을 개선하며 1분기를 마무리했다.

1분기 효자는 '갤럭시 S23 시리즈'였다. MX(모바일 경험)·네트워크 부문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은 3.1% 증가했다. 매출은 2% 줄어든 31조8200억원을 올렸지만, 영업이익 3조9400억원을 기록하며 이른바 어려운 시장에서 '선방'했다.

소비자들은 S22의 GOS(게임 최적화 서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세계 유수의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ABC의 문자가 겹쳐지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쳐지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세계 유수의
문제풀이방법

사무라이스도쿠

하루에 한 장 기획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정답

6	5	9	4	2	1	3	7
4	1	2	8	3	7	6	9
8	3	7	9	4	1	8	7
5	6	3	2	9	6	4	1
1	2	8	7	5	3	9	6
7	9	4	6	1	8	5	2
2	8	1	3	7	9	4	5
9	7	5	1	4	6	8	3
3	4	6	5	8	2	7	1

2	4	5	8	6	1	9	3
1	8	3	9	7	2	5	6
9	6	7	3	4	5	1	2
7	5	2	6	1	8	4	9
4	1	9	7	5	3	2	8
8	3	6	2	9	4	7	5
6	9	8	4	3	7	6	1
3	7	1	5	2	6	8	4

고민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오늘의 운세

5월 10일 (음 3월 2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약간의 멍구름이 끼었으나 일이 잠시 지체됨. 48년생 약속 시간에 늦을 수 있으니 시계 잘 보도록. 60년생 독존적인 사고로 지인을 잃는다. 72년생 미래를 위해 정약을 들어라. 84년생 누군가를 재밌게 흥보는 일은 말아야.



37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부담스럽다. 49년생 음악회에 초대를 받으니 기쁜 하루. 61년생 거짓 눈물에 속지 않도록 하자. 73년생 집에서 나의 고생을 알아주지만 언제 나 외톨이가 되는 듯. 85년생 공짜에 맛있다 밥맛 떨어질라.



38년생 아무도 능력이라 했다. 50년생 우러나는 후한 끝은 있어도 박한 끝은 없다. 62년생 둔하고 아둔한 나를 탓하고 상대를 배려하도록. 74년생 앞날을 위해서 지금 실비보험을 들도록. 86년생 망신살의 부정적인 신살 주의를.



39년생 인맥이 도움이 되어 난국을 타개. 51년생 돌아가 쉴 집이 없다. 63년생 나의 이익을 위해 상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75년생 망설임이 행운을 차서 도로 아미타불. 87년생 차기우니 박하고 인정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40년생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 52년생 힘겨울에 시달리는 건 결국 내 책임. 64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새로운 만남에 신중. 76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좋으니 계획은 떠나보내고. 88년생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만끽하자.



41년생 상대의 바람 상태가 심하지 않으면 용서를. 53년생 기대가 크나 시간이 많이 지나쳐서 이득은 적다. 65년생 열정과 희망이 넘치는 일과이다. 77년생 고통을 이겨내는 힘은 마음에 있다. 89년생 이별 통보도 각자의 인연 법.



42년생 문제가 어려워도 잘 풀어져 나간다. 54년생 병문안 가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해보라. 66년생 같은 땅 같은 쌔로 꽃이 피는 시기는 다르다. 78년생 첫 숟가락에 배부르지 않다. 90년생 남의 허물을 말하거나 드러내지 말자.



43년생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있어서 다행. 55년생 급할 수록 돌아가야 실수가 없다. 67년생 마음만 잘 다스려도 재물이 찾아온다. 79년생 지각하지 않도록. 91년생 겨울이 아니어도 귀신과 액을 쫓기 위해 팔죽을 쑤어 먹어보자.



44년생 저녁에는 정서적 지지가 큰 힘이 된다. 56년생 사생하는 사람이 많으니 주의. 68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80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의를 다하는 것이. 92년생 헤어진 아픔은 신앙이 있다면 기도로 힘을.



45년생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절이 떠날 수는 있는 것 아니겠는가. 57년생 힘들어도 끝까지 완주. 69년생 위장 질환이 의심되면 병원으로. 81년생 계약까지 의외의 복병을 조심. 93년생 사건이 많다 보니 인생은 고해라는 말을 이해.



46년생 과가는 과거일 뿐이라고 하지만 현실인 것. 58년생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건강에 도움. 70년생 재훈의 예단 준비로 의견충돌 예상. 82년생 음주는 삼가자. 94년생 과학은 미래예측이 미리 예방되니 사전 준비할 수 있다.



47년생 참으로 어려운 것이 인간사 인연법인데. 59년생 나중에 철천지원수가 되어 버린 고부간이나의 일이 될 수. 71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움직여라. 83년생 그림을 쥐미로 해볼 것. 95년생 비를 맞고 감기에 걸리는 현상처럼 뿐였다.



김상회의四季

금값 된 금

어떤 물건의 가격이 비싸졌을 때 금값이 됐다고 표현한다. 요즘 금값이라고 부를 만한 물건이 있는데 금이다. 금 가격이 치솟으면서 말 그대로 금값이 됐다. 주춤하고는 있지만 한 돈 가격이 한국 금시장 개설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장은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뉴욕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 가격이 오르는 건 먼저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이다.